

광주시부교육지원청, 신가초

우리동네 생태탐방 실시

담양하천습지서 생태체험 프로그램 운영



광주시부교육지원청이 9월 30일 영산강 유역 담양하천습지에서 신가초등학교 학생 40여명을 대상으로 '알아두면 쓸모있는 우리동네 생태탐방' (이하 알쓸우생) 프로그램을 실시했다.

'알쓸우생' 프로그램은 우리 지역 대표 하천인 영산강 상류지역에 서식하고 있는 다양한 생태환경을 알아감으로써 우리지역 자연환경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그

와 더불어 생태인문학적 감수성을 신장하기 위해 기획되었다.

이날 프로그램에 참여한 학생들은 미국흰불나방에 의해 가해된 뽕나무가 다시 살아나는 장면, 담쟁이 넝쿨이 흙반을 이용하여 오르는 모습, 뚝배기서성거미의 등글동글한 권투장갑 더듬이를 관찰하면서 다양한 생태환경에 대한 이해를 높였다.

프로그램에 참여한 학생은 "거

미를 무서워했는데 손바닥에 올라온 거미를 보니 귀엽게 느껴졌다"고 말하며 흥미로워 하였다.

프로그램을 인솔한 영산강유역환경청 소속 손광민 해설사는 "모든 곤충들과 식물들이 존재의 이유가 있으며, 자연에 대한 바른 이해는 사람 사는 사회를 이해하는 초석이 될 수 있다"고 말하였다.

담양하천습지는 영산강 상류에 위치한 조류의 집단서식지이며 자연형 하천 형태를 유지하고 있어 2004년 7월 8일에 우리나라 하천습지 중 최초로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되었으며, 황조롱이, 새매, 청딱따구리, 물총새 등 다양한 철새들을 관찰할 수 있다.

서부교육지원청 이영주 교육장은 "광주는 무등산과 영산강이라는 천혜의 생태교육 자연환경이 있으며, 이를 활용한 생태환경교육을 통해 학생들의 생태감수성을 키울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알쓸우생' 프로그램은 서부관내 초등학교 8학급을 대상으로 오는 29일까지 진행된다.

조인호 기자

전남 학생들, 제27회 전국자연관찰탐구대회 '두각'

순천용당초 금·은·동상 각 1개, 장려상 3개 수상



전남도자연탐구수련원의 지도와 지원을 받은 전남 학생들이 전국자연관찰탐구대회에서 발군의 성적을 거뒀다.

전남자연탐구수련원은 지난 9월 21일 서울 과학전시관에서 열린 제27회 전국자연관찰탐구전국대회에서 순천용당초 금상을 비롯해 금상 1은상 1, 동상 1, 장려상 3개

를 수상하는 우수한 실적을 거뒀다고 1일 밝혔다.

이런 결과는 전국자연관찰탐구대회에 참가하는 학생과 교사들이 방학동안에도 쉬지 않고 전남자연탐구수련원에 나와 관찰탐구와 관련된 내용을 집중 공부해 실력을 갈고 닦은 노력의 결과로 풀이된다.

전남자연탐구수련원은 방학 중 특별지도 및 컨설팅 등 전폭적인 지원과, 도교육청 미래인재과의 특별한 관심으로 지원을 해줬다.

금상을 받은 순천용당초 강선영 교사는 "방학 때 쉬지도 못하고 묵묵히 따라준 학생들과 전폭적으로

지원해준 교장, 교감 선생님, 그리고 특별지도 및 컨설팅을 통해 중요한 정보 등을 아낌없이 제공해준 특별강사 강순기 선생님과 자연탐구수련원의 협조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수상을 한 다른 교사들도 "모든 학교에서 골고루 상을 받아 좋다."며 "지도해주신 강순기 선생님과 연구사님 공로가 크다."는 등 서로를 격려했다.

이형업 원장은 "자연탐구수련원은 앞으로도 전남지역의 학생들이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도록 자연관찰 및 탐구능력을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해더 많이 체험하고 느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광주교육청, 초등 교사 등 임용시험 접수 경쟁률 8.1대 1

광주시교육청이 지난 9월 23일부터 9월 27일까지 5일간 2020학년도 공립 유치원·초등학교·특수학교(유치원·초등) 교사 임용 후보자 선정경쟁시험 원서접수결과, 총 79명 선발인원에 642명이 지원해 평균 경쟁률 8.1을 기록했다고 30일 밝혔다. 지난해 10.8대1보다 소폭으로 감소했다.

분야별 선발대비 지원 인원은 ▲유치원 교사 37명 선발에 407

명 지원 ▲초등학교 교사 10명 선발에 78명 지원 ▲특수학교(유치) 교사 11명 선발에 45명 지원 ▲특수학교(초등) 교사 21명 선발에 112명 지원으로 총 642명이다.

교육청은 응시자 편의를 위해 원서접수 취소기간을 9월 30일(월) 오후6시까지 부여하고 취소한 자에 한해 응시수수료를 환불했다.

2020학년도 광주시 공립 유치원·초등학교·특수학교(유치원·초등) 교사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 제1차 시험 장소는 11월 1일 광주시교육청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한다. 제1차 시험일은 11월 9일(토)이다.

제1차 합격자는 12월 11일에 발표되며, 2020년 1월 8~10일 제2차 시험을 거쳐 내년 1월 30일에 최종합격자를 발표한다.

여수 웅천초, 국제협력학교 지원 아나바다 장터 운영



여수 웅천초등학교가 베트남 국제협력학교 지원을 위한 사랑나눔 아나바다 장터를 성황리에 운영했다.

웅천초등학교는 학생, 학부모, 교직원이 함께하는 글로벌 봉사활동을 통해 봉사정신 및 국제협력의식을 함양하기 위해 해마다 사랑나눔 아나바다 장터를 운영하고 있다.

지난 9월 28일 웅천 지열 아파트 중앙홀에서 열린 아나바다

장터에는 학생 134개 팀이 참가해 학용품, 도서, 장난감 등 다양한 물건을 팔았고, 학부모회에서는 먹거리 장터를 운영했다. 또한 학부모, 학생, 지역민, 교직원 등 약 500여 명이 장터를 이용했다.

장터를 운영한 학생들은 수익금의 전액 또는 일부를 기부했고, 학부모회에서는 먹거리 장터의 운영 수익금 전액을 기부했다. 또한 장터를 이용한 일부 학생, 학부모, 교직원들도 기부금을 내며 나눔을 실천했다. 이 행사의 기부금 및 장터 운영 수익금 450여 만 원은 국제협력학교인 베트남 안빈탄 초등학교를 지원하는데 쓰일 예정이다.

이 행사에 참여한 6학년 김다

유 학생은 "오늘 아나바다 장터에서 내가 가장 좋아하는 그룹들의 CD 및 굿즈를 판매하였다. 내가 아끼는 것들이지만 베트남 친구들에게 좋은 일을 할 수 있다는 마음에 너무 뿌듯했다."며 "앞으로도 이런 기회가 있다면 꼭 참여하고 싶다."고 말했다.

황현선 학부모회장은 "아나바다 장터를 준비하고 운영하는 과정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었다."며 "그러나 이 행사를 통해 학교와 학부모가 소통하고 하나가 되는 기회가 됐고, 학생, 학부모 모두가 나눔의 의미를 다시금 새기는 의미 있는 행사였다."고 말했다.

여수=송기홍 기자

구례 중등초, 교육공동체 섬진강 행복걷기 체험 행사 개최



구례 산수유 마을에 자리잡고 있는 중등초등학교가 지난 9월 30일 '2019. 중등초 교육공동체 구례 사랑 섬진강 행복걷기' 행사를 개최했다.

이번 구례사랑 행복걷기는 학생과 학부모, 교직원이 함께 교육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함께 만들어가는 교육을 실천해나가는 장을 마련하는 계기가 됐다.

섬진강을 따라 학생, 학부모, 교직원이 함께 하는 카누체험 및 생

태 해설사와 함께하는 섬진강 생태 체험 및 섬진강 생태보전 활동을 펼쳤다. 또한 멸종위기종인 수달과 섬진강 생태에서 살고 있는 다양한 동식물을 관찰하며, 자연 속에서 함께 살아가는 동식물에 대한 생명존중을 경험할 수 있는 시간이 됐다.

무엇보다 체험중심 생명존중교육과 학교 현장의 체험프로그램에 대한 학부모 이해 등 학교 교육과정이 현장에서 어떻게 적용되고 실제적인 교육프로그램이 이뤄지는가에 대해 폭넓게 이해할 수 있는 자리가 됐다.

체험에 참여한 5학년 학부모는 "평소 맞벌이 가정과 자녀의 사춘기 문제로 인해 자녀와 함께하는 시간

이 없어 고민이었는데 아이들과 함께 섬진강 카누 생태체험과 섬진강변 걷기를 통해 서로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어 잊지 못할 추억이 됐다"고 말했다.

윤미숙 교장은 "다문화 가정인 많은 소규모 농촌학교의 특성상 학생과 학부모, 교직원들과 소통의 문제가 많이 발생한다"며, "이런 문제를 교육공동체의 문제로 접근해 함께 고민해보고 함께 만들어가는 교육과정 운영을 통해 새로운 관계를 형성해 나가면 좋겠다"고 말했다.

중등초는 앞으로도 다문화 가정이 많은 소규모 농촌학교의 특성을 살려 학생, 학부모, 지역민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을 자주 마련함으로써 모두가 하나라는 교육공동체 의식 함양에 나설 계획이다.

